

2017 통권 제 25권 제 1호

2017年度 史學科 春季學術古蹟踏查



亞洲大學校 人文大學 史學科

목차

- 답사 일정
- 답사를 준비하며
- 우리가 가는 길
- <지조와 절개 및 신념을 찾아서>
- 지역개관 ; 순창, 담양, 해남, 강진, 광주, 정읍

<조선, 지조와 절개의 꽃 ; 조선 초기>

1. 신말주와 귀래정
2. 전신민과 독수정 원림
3. 양산보와 소쇄원

<전쟁과 혼란, 그러나 지조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 양난 이후>

1. 임진왜란
2. 서산대사와 표충사
3. 다산 정약용과 다산 초당

<아픈 역사 속에 드러나는 지조와 절개라는 이름의 '희망' ; 일제 강점부터 현대>

1. 광주 항일 학생 운동
2. 5·18 민주화 운동
3. 동학 농민 운동
4. 황토현 전투
5. 고부 농민 봉기와 만석보지

- 읽기 자료 ; 선운사
- 사나래 세미나
- 별첨 : '사학과에 대한 나의 생각'
- ENDING CREDIT

답사 일정

| | |
|--|---|
| <div data-bbox="323 440 600 714"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207 836 742 871">2016년 사학과 춘계 학술 고적 답사</p> | <p data-bbox="775 324 1140 359">1일차 <3월 31일 목요일></p> <p data-bbox="775 415 1286 909"> 08:40 - 08:50 원천관 앞 집합 09:00 - 12:00 이동 12:00 - 12:40 점심 (순창 귀래정) 12:40 - 12:50 이동 (걸어서) 12:50 - 13:20 신말주 선생 후손 세거지 13:20 - 14:20 이동 14:20 - 14:50 독수정 원림 14:50 - 15:00 이동 15:00 - 15:40 소쇄원 15:40 - 17:00 이동 17:00 - 17:50 선운사 17:50 - 18:00 숙소로 이동 (걸어서) </p> |
| <p data-bbox="216 1000 566 1035">2일차 <2월 1일 금요일></p> <p data-bbox="216 1091 701 1503"> 08:00 - 08:50 기상 및朝食 09:00 - 10:20 이동 10:20 - 11:50 표충사 (대흥사) 11:50 - 12:10 이동 12:10 - 13:00 점심 (해남 태현 식당) 13:00 - 13:30 이동 13:30 - 14:35 다산 기념관 14:35 - 14:45 이동 14:45 - 16:00 다산 초당 16:00 - 17:30 숙소로 이동 </p> | <p data-bbox="775 1000 1123 1035">3일차 <4월 2일 토요일></p> <p data-bbox="775 1091 1297 1673"> 07:00 - 07:50 기상 및朝食 08:00 - 10:30 이동 10:30 - 11:00 광주 학생 독립 운동 기념관 11:00 - 11:40 이동 11:40 - 12:20 점심 (고서 옛날 창평 국밥) 12:20 - 12:35 이동 12:35 - 12:10 국립 5·18 민주 묘지 12:10 - 14:10 이동 14:10 - 14:40 동학 농민 혁명 기념관 14:40 - 14:50 이동 (걸어서) 14:50 - 15:10 황토현 전적지 15:10 - 15:30 이동 15:30 - 15:45 만석보터 15:45 - 18:45 아주대학교로 이동 </p> |

답사를 준비하며

안녕하세요. 2016년도 사학과 학생회장을 맡은 14학번 김정현입니다. 벌써 개강한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입생으로 입학한 2014년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는 3학년이 되었고, 학과 회장을 맡고 있네요. 주변 선배님들은 꼬꼬마 신입생이었던 애가 많이 커서 사학과 회장을 하고 있다고 하나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요. 항상 학생회 선배들이 준비한 답사를 참여만 했던 제가 어느새 많이 커서 직접 답사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책임자가 되었네요.

답사, 그 중에서도 춘계 학술 고적 답사는 사학과 1년 중 가장 큰 행사입니다. 항상 제가 입에 달고 사는 ‘사학과와 꽃 춘계 답사’는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부담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그 큰 행사를 내가 잘 기획할 수 있을까. 잘 진행할 수 있을까. 1박 2일도 아니고 2박 3일인데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을 했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과 걱정을 할 시간도 사치라는 듯이 제가 회장을 맡게 된 2016년이 되자마자 춘계답사는 제 옆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1월이 되자마자 춘계 답사의 코스를 짜기 시작하고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답사,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모두가 만족할만한 답사를 위해서 방학 때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사전답사를 다녀왔기에 빼야할 유적지가 생겼고, 추가하는 코스가 생기기도 하고, 동선을 체크하는 등 좀 더 체계적이고 알찬 답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한 2016년도 춘계 답사는 ‘전라도’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라도 답사입니다. 처음 전라도 지역으로 춘계답사가 정해졌을 때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경상도나 충청도는 짤 수 있는 주제도 다양하고 많은 유적지가 모여 있는데, 전라도는 딱 이렇다 할 주제도 생각나지 않고, 유적지도 전라도 곳곳에 퍼져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답사를 기획해야할까. 어떻게 주제를 짜야 사학과 학우들이 흥미를 가질까. 많은 고민 끝에 ‘지조와 절개’라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 주제를 생각해냈습니다. 처음 생각은 ‘과거 많은 분들의 유배지였던 전라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생각은 점점 꼬리를 물고 퍼져서 유배를 당한 분들의 사연을 찾아보게 되었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유배를 당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배에만 한정하지 않고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지조나 민주화라는 가치를 위해서 싸운 분들의 신념까지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주제와 코스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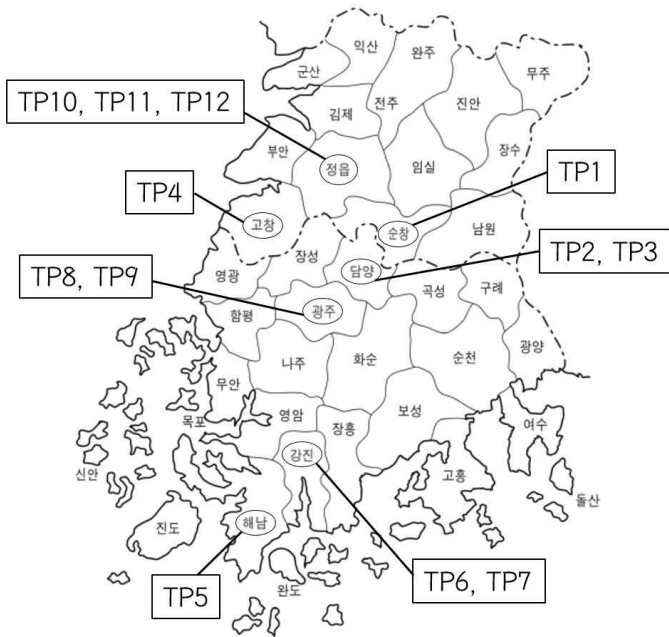
그런데 답사가 주제와 코스만 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록! 요록이라는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구조를 따르기로 하였고, 내용도 알찬 내용만 담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역사적인 사실과 인물을 어떻게 이야기로 풀어내야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이야기로 풀어내는 게 맞는 일일까 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한 방향이 다른 분들의 역사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 방향이 틀린 방향은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답사의 주제에서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시각에서 이번 답사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책 한 권을 읽는다는 생각으로 요록을 읽고 답사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답사를 준비하면서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뭔가 언급하려니까 울컥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선뜻 학생회 일 도와주신다고하고 지금 열심히 답사 때 발표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학술국장 정근이 오빠, 정근이 오빠를 따라서 역시 열심히 발표를 준비해주는 우리 기획국장 겸 학술차장 지영이, 좀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답사를 위해서 요록을 만들어주고 또, 레크레이션도 열심히 생각해 준 우리 기획국장 영찬이, 열심히 준비한 답사인데 시험 때문에 같이 못가서 너무 아쉽네요. 또, 항상 학생회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학과 복지를 위해 힘써주는 우리 복지국장 인범이, 다양한 학과 행사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주고 학과 행사에 대해 이야기도 많이 해주는 우리 홍보국장 헤민이. 그리고 우리 '울림' 학생회 국원 기영, 리현, 민지, 우진, 태훈, 현우, 은지, 의경, 희성, 윤환, 중환, 금지, 경희 너무 고마워요. 이번 답사는 여러분이 없었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거예요. 세미나 준비로 바쁠 사나래, 요록 쓰느라 너무 고생 많았던 역기, 사학과에 활기를 주는 바우까지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조언해주신 교수님들과 선배님들, 동기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사전 답사 때, 같이 고생한 태훈이, 정근 오빠, 영찬이, 운전하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해준 성진이한테도 다시 한 번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학생회장 **태훈이!** 답사 때문에 가끔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될 때도 있었는데 이해해주고 같이 노력하고 고생해준 우리 **태훈 친구~** 티격태격하면서도 함께 답사를 잘 준비해와서 너무 뿌듯합니다. 무슨 시상식 소감도 아니고 너무 말이 길었네요. 이번 답사는 최근 몇 년간의 답사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가서 부담도 크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전하고 재미있는 답사를 위해서 **태훈이와 저는** 답사 마지막 날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년도 사학과 학생회장 14학번 김정현

우리가 가는 길



| 3월 31일 (목) | TP1 | TP2 | TP3 | TP4 | |
|---------------|-----------------------------|------------------|-----------------|------------|------|
| | 순창 귀래정, 신말주 선생 후손 세거지 | 독수정 원림 | 소쇄원 | 선운사 | |
| 4월 1일 (금) | TP5 | TP6 | TP7 | | |
| | 표충사 (대흥사) | 다산 기념관 | 다산 초당 | | |
| 4월 2일 (토) | TP8 | TP9 | TP10 | TP11 | TP12 |
| | 광주 학생 독립 운동 기념관 | 국립 5·18 민주 묘지 | 동학 농민 혁명 기념관 | 황토현 전적지 | 만석보터 |

<지조와 절개 및 신념을 찾아서>

이번 2016년 춘계 학술 답사 지역은 ‘전라도’입니다. 전라도라고 하면 흔히들 조선시대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유배지라는 이미지를, 일제강점기에는 항일 운동, 즉 ‘저항’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조선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섬기는 왕을 위해, 나라의 백성을 위해, 또 나라의 안위를 걱정해서 옳은 말과 옳은 행동을 하다가 유배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제 강점기의 격렬한 항일 운동들, 특히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었던 광주 항일 학생 운동, 그리고 일제강점 이후 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은 당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이 소중히 여긴 가치를 지키려는 지조와 신념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려는 그 지조와 절개, 곧은 신념을 이번 춘계답사에서 생각해보고 찾아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답사의 주제를 ‘지조와 절개’로 정하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조선, 지조와 절개의 꽃’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인 조선 초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전쟁과 혼란, 그러나 지조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소주제로 조선 양난과 그 이후, 조선이 발전함과 동시에 조선의 정치가 문란했던 시기에 나타난 지조와 절개 및 신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셋째 날의 소주제는 ‘아픈 역사 속에 드러나는 지조와 절개라는 이름의 희망’입니다. 일제 강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그들의 지조와 절개 및 신념을 알아 볼 것입니다.

사실 요즘의 현대 사회를 생각해보면, 옛날 선비들이나 나라를 위해 싸웠던 분들에 비해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는 지조와 절개, 신념을 잘 찾아 볼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옛 분들의 생각을 본받아서 현대 사회에 알맞게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분명히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런 과거를 토대로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현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지금에 비해 이해관계가 단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동 하나를 해도 생각할 게 너무나 많은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는 가치관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가치를 지키려는 신념 또한 찾아보기 힘든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일수록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반대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이 지키고픈 소중한 가치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답사에서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자신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또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

게 마음을 먹고 행동해야할지를 선조들의 기운을 통해서 조금은 윤곽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나먼 전라도 지역으로 답사를 가게 된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답사를 통해 정말 조금이라도 자신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성공적인 답사를 다녀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춘계 학술 답사가 매우 의미가 있고 보람찬 답사가 되길 바랍니다.

순창 지역개관

15 고성진



▲ 『해동지도』에 소개된 순창 고지도

순창군의 역사는 백제의 도실군(道實郡)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순화군(淳化郡)으로 그 명칭이 바뀌고 고려시대에는 남원부에 속한 순창현이 되었습니다. 이후 1409년(태종9)년부터 지금의 행정구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창읍과 관련된 인물로는 『강계지』를 저술한 실학자 신경준과 갑오농민전쟁 당시 동학군을 인솔하여 황토현전투를 치른 순창접주 우동원(禹棟源), 순창객사에 충분부를 두고 항일의병활동을 전개한 최익현(崔益鉉) 등이 있습니다. 순창군은 전라북도 남부지역 중앙에 위치하여 있으며 노령산맥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회문산 내장산 등 높은 산들이 위치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섬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춘계답사의 주제는 지조와 절개입니다. 우리는 순창에서 답사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창군은 하늘 아래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불사이군의 정신을 보여주는 신말주가 귀래정(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에 있는 조선시대 누(정)각.)을 짓고 초야에서 은둔생활을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조의 총애를 받고 실권을 가진 신말주의 형 신숙주는 신말주에게 정계에 진출하기를 부탁하였지만 신말주는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한 조선초기의 문신입니다. 순창군은 그의 지조

와 절개를 기리기 위해 귀래정과 십로계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화첩인 십로계첩(조선 시대의 문신 신말주가 만든 십로계의 계첩)을 문화재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창은 갑오농민전쟁을 이끈 전봉준이 마지막으로 일본군에게 체포된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동학농민군 잔여세력과 전봉준은 순창군 피로리 피로마을에서 피신하였다가 부하 김경천의 밀고로 일본군에 압송됩니다. 갑오농민전쟁은 당시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자신들의 의지를 꺾기지 지킨 농민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혁명이었습니다. 이렇듯 갑오농민전쟁의 신념과 신말주의 절개가 담긴 순창군은 이번 춘계답사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담양 지역개관

15 조현정



▲ 『동국지도』에 수록되어있는 담양의 옛 모습

담양의 지도를 보면 담양의 북쪽에는 산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추월산, 금성산, 광덕산이 있습니다. 또한 서쪽에는 병풍산, 남동쪽으로는 무등산 및 국수봉이 있으며 남서쪽으로는 전남평야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형은 동서보다 남북 쪽이 긴 지형으로 북쪽이 높고 남쪽은 낮은 분지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을 이룬 탓에 기후는 한서의 차가 심하며,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러한 지형은 비가 많이 올 수 없지만, 담양은 예외로 비가 많이 오는 다우지에 속합니다. 이런 기후에서는 대나무·느티나무·이팝나무 등이 잘 자라는데, 담양은 전국에서 제1가는 죽림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담양의 대나무는 높이 뻗은 줄기답게 예로부터 성인군자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대나무의 날씬하고 쪽 뺨은 모양은 곧은 현자의 외형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고개 숙인 이파리와 빈속은 겸양지덕을 갖춘 선비의 모습에 비유되었습니다. 또한 대나무는 지조 있는 선비의 모습과 여인의 절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나무는 마디마디가 분명한데, 마디 사이는 단단하게 막혀있습니다. 따라서 그 단단함이 마치 선비의 강직함과 같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대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기 때문에 여성의 절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담양은 대나무뿐만 아니라 절개와 사랑을 담은 ‘사미인곡’의 작가 송강 정철과 같은 가사문학의 산실로도 유명합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휘어질망정 부러지지는 않는 대

나무를 닮은 탓인지 담양은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습니다. <미암일기>를 쓴 유희춘, <면양정가>·<치사가>·<면양정단가>의 작가 송순, 국내 유일 조경을 갖춘 사원인 소쇄원을 짓고 학문연구와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한 양산보, 일제강점기 때 독립 운동가였던 송진우 선생이 담양 출신입니다. 이들은 모두 각 시대의 울곧고 대쪽 같으며 지조 있는 선비로 유명합니다.

또한 담양에는 경관이 수려한 정자 등, 많은 문화재 및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로는 가마골이 있습니다. 담양군 용면 용연리에 있는 용추산을 중심으로 사방 4km 주변을 가마골이라고 부르는데, 폭포와 기괴암석들이 수려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려한 외관과는 달리 이곳은 아픈 상처를 지닌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6·25전쟁 때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있었던 곳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북한군 패잔병들이 낮에는 몰래 숨어 지내다가 밤에는 민가로 내려와 약탈, 방화, 살해를 일삼았던 근거지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1955년 우리나라 군인들의 노력으로 인해 이들을 몰아낼 수 있었고, 그 이후에 그것을 기려 관광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울곧은 성품을 느낄 수 있는 높다란 대나무 숲길을 따라 걷다보면, 대나무의 지조와 절개에 대해서 고찰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나무를 보면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하고 자신의 신념을 곳곳이 지켜나간 선조들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선비들이 대나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고 가사문학에 그 마음을 어떻게 담아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해남 지역개관

15 오유진



▲ 『광여도』에 수록된 해남의 모습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해남은 ‘해남 땅 끝 마을’이라는 명칭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지역입니다. 또한 전라남도 최대의 군인 해남은 동서 간 연장거리 44.2km, 남북 간 연장거리 54.8km에 달합니다. 과거부터 이 지역은 영산강 유역의 문화적 요소들이 밀집되는 공간적 배경이었고 서남부를 경유하는 해로 때문에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을 연결한 문화이동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해남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남에는 고산 윤선도의 고택인 녹우당이 있습니다. 효종임금이 윤선도에게 하사하신 녹우당은 조선중기에 건립된 호남의 대표적 상류주택으로서 규모가 크고 가옥의 구조와 건축 양식 요소가 풍부하여 유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해남은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위인들 중 한 분인 이순신 장군의 역사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영화 ‘명량’의 소재였던 명량대첩이 임진왜란 때 이 곳 해남, 울돌목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울돌목은 해남군의 우수영과 진도의 녹진 사이에 있는데 평균 유속이 빠르고 교차 조류로 인해 파도가 거칠고 물살이 험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지형을 이용하여 명량대첩을 큰 승리로 이끌었고 명량대첩의 승리는 7년이나 지속되었던 전쟁을 끝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정 신료들의 반대와 비난을 물리치고 “신에게는 아직 13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전쟁터로 나간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지조와 절개가 있는 인물이며 우리가 후손으로서 존경해야할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남에서 선조들의 지조와 절개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는 바로 표충사입니다. 표충사에서는 사명대사와 서산대사, 그리고 기허당의 영정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임진왜란 때 승려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큰 공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만약 이들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조선에 대한 지조와 절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조와 절개는 신념을 굽히지 않고 꿋꿋이 밀고 나가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 곳 해남에서 여러 위인들의 지조와 절개를 되새기고 또 본받기를 바랍니다.

강진 지역개관

15 박건희



▲ 『강진군읍지』에 수록된 전라남도 강진군의 지도

강진은 전라남도의 남서부에 있는 군으로, 동·서·북 삼면이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서쪽에는 강진만이 위치해있으며 중앙부에는 산맥이 동서로 가로 질러 있습니다. 강진만은 도암면과 대구면 사이에 위치한 만으로 강진군의 전체적인 형상을 ‘인(人)’자의 형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강진이라는 지명은 도강(道康)과 탐진(耽津)에서 한 글자씩 떼어서 합한 것입니다. 도강은 강진읍에서 북쪽으로 30리 정도 떨어진 병영에 그 치소가 있었으며, 조선 태조 대에 들어와서는 이곳에 병영을 신설하며 행정구역 상 강진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탐진은 1417년(태종 17년) 도강의 구역과 병합되어 도강과 함께 ‘강진’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진의 지형에 관련된 설화로 ‘연지설화’를 들 수 있습니다. 약 350년 전, 강진에 부임해온 현감들은 아전의 횡포로 인해 소신 있는 정치활동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전들의 횡포가 극심하여 때로는 현감의 자리가 비어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1653년, 신유라는 사람이 강진의 현감으로 부임하였고 강진의 지세로 인해 아전들이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강진의 지세란 와우형(臥牛形), 즉 황소의 형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유는 ‘황소는 코뚜레를 뚫어야 말을 듣는

다.’는 점에 바탕을 두어 코뚜레 자리에 해당하는 땅에 연지를 파내었습니다. 그 결과, 강진의 지세가 변화하여 아전들의 횡포가 사라지고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올바른 통치로 맞이하게 된 강진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해안에 위치함으로써 왜구의 잦은 침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덕사에 위치한 백련사는 이로 인해 불에 타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왜구를 막기 위해 진성(주로 수군들이 전투를 위하여 해안 벽에 쌓는 성곽.)을 쌓고 군선(군대에서 쓰는 배. 예전에 해전(海戰)에서 쓰던 배를 주로 이른다.)을 두었다고 하나, 안타깝게도 현재 진성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왜구들의 잦은 침략이 있던 강진은, 남도의 유배지로써 더욱 알려져 있습니다. 강진에서 유배를 당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이곳에는 그가 11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던 다산초당이 위치해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를 오게 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여, 다산초당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고 이들과 저술 작업까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유배생활을 하며 저술한 것에는 『흰구름(白雲)』, 『기러기』, 『가을날 형님을 그리며』 등이 있으며, 정약용의 슬픔과 괴로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개관

15 조혜민



▲ 『조선팔역도』에 나타난 광주의 옛 모습

한반도의 남서부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는 전라남도의 중앙보다 북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호남지방에서는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주의 동쪽은 산지이고 서쪽은 평야지대여서 광주는 산지지역과 평야지대의 접촉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서쪽의 평야지역에 비옥한 충적지가 발달하여 농경에도 적합한 지역이고, 산지와 평야 지역의 연결지점이므로 두 지역 간 교역을 함에 있어서도 용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 덕분에 예부터 호남지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역할을 해왔습니다.

광주는 마한시대 때부터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한의 소국 중 하나인 백제국이 백제로 성장한 이후, 백제 3주의 하나인 무진주가 되었고, 당시의 이 지역은 백제의 해상세력을 형성한 중요한 거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일본과의 교류가 용이한 중요 교통로였기 때문에 문물 교역의 요지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 한 후에는 전국을 9주로 나누었고 그 중 하나인 무주로 지역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후삼국 시대였던 진성여왕 6년에는 견훤이 이 곳 무진주를 차지하여 독자적 기반을 닦았습니다. 고려 건국 이후, 태조23년에 처음으로

광주라는 명칭으로 개칭하였고, 그 이후 수차례의 개칭과 현 또는 부로의 이동을 반복하였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한 후 광주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1986년에 부산 대구 인천에 이어 4번째 직할시로 승격되었고 1995년에 현재의 명칭인 광주광역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광주는 명칭과 행정 구역에 있어서 수많은 변천을 겪으면서 오랜 역사를 이어온 만큼 과거에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역사가 깊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는 1500년 대 후반에서 1600년 대 초반에 두드러졌던 의병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1592년 임진왜란 때에 이 지역에서는 고경명·김덕령 등의 의병장들이 의병을 이끌고 활약을 하였으며, 정묘(1627)·병자호란(1636) 때는 정반·고일립·유박 등의 의병활동이 활발했습니다. 또한 1894년의 갑오농민전쟁 때는 손화중이 광주에서 봉기해 4000여 명이 운동에 참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의 침입에 대항하는 항일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906년 김원국, 1908년 양진여·양상기 부자와 김태원·심남일·신덕균 등의 항쟁이 그 예입니다. 1929년 11월 3일에는 광주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광주학생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파급되었습니다. 1980년에는 신군부의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 실현을 촉구했던 민중항쟁이 발생하였는데 이 항쟁이 광주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 중 가장 잘 알려진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어온 광주에는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광주를 답사함으로써 시대와 상황은 달랐지만 국가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맞서 싸운 조상들의 빛나는 지조와 절개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읍 지역개관

13 임정근



▲ 『동국지도』에 수록된 과거 정읍 지역의 모습

전라북도 남서부에 위치한 정읍시는 노량산맥이 통과하는 남부지역을 제외하고 평야와 구릉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부지역은 내장산을 포함한 많은 산들을 경계로 다른 지역과 구분되고 북쪽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산맥이 자리 잡고 있는 남쪽과 동쪽에서 발원한 고부천, 정읍천, 동진강 등은 주변의 들판을 적시며 서북쪽 끝에서 합류하여 서해로 흘러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 또한 풍부하여 백제시대부터 우물정자를 써서 정촌이라고 불렀으며 현재도 정읍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지역 개관에 들어가며 지역 정체성에 대해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부터 우리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 길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해석을 통해 지금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정읍은 갑오농민전쟁의 시발점이라는 이미지로서 다가옵니다.

갑오농민전쟁을 통해 농민들은 안으로는 봉건사회의 모순을 타파하고 밖으로는 침략외세를 물리쳐 자주적인 근대사회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갑오농민전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지조와 절개’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지난 100년 동안 그 이념이

어떻게 계승 발전되고 어떠한 이유에서 주목을 받았는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오농민전쟁의 횃불은 전라도 정읍에서 타올랐습니다. 당시 '정읍'이 속한 호남지역은 전국 쌀 생산과 논 면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지주는 치부에 치부를 거듭했고, 그 통해 수많은 중소농민들은 희생만을 강요당했습니다. 지주들이 행한 중소농민들에 대한 차별은 계급별 소외로 연결되었습니다. 중소농민들은 처음에는 못 느꼈지만 점차 부당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깨기 위해 고부농민봉기를 일으켜 저항하였습니다. 그 저항의 역사에서 당시 사회에서 안정된 생활 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몰락한 잔반인 소외계층출신의 전봉준이 앞장 서 갑오농민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이들에게 저항은 개혁으로 가는 길이었고, 개혁이 완성되지 못하면 다시 혁명을 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었습니다.

이번 답사의 주제는 '지조와 절개'로 '지조'는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 나가는 꿋꿋한 의지 또는 그런 기개'를 이르는 말로 쓰이고, '절개'는 '신념, 신의 따위를 굽히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는 꿋꿋한 태도'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지조와 절개'는 신념을 지켜나가는 꿋꿋한 태도와 의지를 말합니다. 정읍은 갑오농민전쟁의 처음이었습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과 탐욕이 만석보를 만들어 농민들의 피를 말렸고, 그에 저항하여 농민들은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이전의 집회나 상소에서는 볼 수 없이 농민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동학과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갑오농민전쟁의 시발점이었던 정읍지역에서 그 '지조와 절개'의 모습을 찾아보고, 동학농민의 봉기가 여기서 왜 시작되었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월 31일

첫째 날

< 조선, 지조와 절개의 꽃 >

1. 신말주와 귀래정
2. 전신민과 독수정 원림
3. 양산보와 소쇄원

신말주와 귀래정

15 고성진

신말주

신말주는 고령 신씨의 시조 신성용(申成用)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직제학과 부제학을 거쳐 오랫동안 대제학으로 있다가 나주로 귀향한 신장입니다. 그의 다섯 번째 아들인 신말주는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1454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난 후 맑은 직이라고 칭하는 청직(淸職)을 두로 지냈는데, 내외관직을 역임하고 사간원 대사간에 이른 학자입니다. 그의 셋째 형은 세종 때 박팽년, 성삼문과 함께 훈민정음 반포에 큰 공을 세운 신숙주로 유명합니다. 당시 외직에 나가있던 신숙주는 수양대군이 계유정난(1453년(단종 1)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 일으킨 사건)을 일으켜 왕위에 오르자 단종을 저버리고 세조를 선택합니다. 이후 그는 병조판서, 우의정까지 지내며 출세를 거듭하게 됩니다. 하지만 형과 달리 신말주는 벼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모두 거절하고 병을 핑계로 순창에 내려와 학문에만 힘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형인 신숙주가 도덕적 선택이 아닌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과 달리 신말주는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 행동한 인물로서 그는 이번 춘계답사의 주제와 일치하는 문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신숙주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는 자신이 모셔야 할 왕을 배신하고 유자의 법도를 위반한 일물일수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판에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고수한 정치인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답사에서 답사의 주제인 지조와 절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 둘을 비교한다면 춘계답사의 취지를 한층 더 잘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래정

귀래정은 신말주가 순창에 내려와 자신의 호를 따서 지은 누각입니다. 순창의 남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1974년 다시 세운 것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의 형태를 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경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자에 안쪽에는 서거정이 지은 '귀래정기(歸來亭記)'와 강희맹(姜希孟)의 시문 등이 새겨져 있고 윤



▲ 귀래정

선도가 미불(미원장) 필법으로 쓴 귀래정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또한 권선문첩을 쓴 설씨부인과 신말주의 11대손 여암 신경준이 출생한 장소인 귀래정은 순창의 선비문화를 보급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으며, 하늘 아래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불사이군의 지조와 절개가 깃든 장소입니다. 이렇듯 신말주의 지조와 절개가 담긴 귀래정은 우리로 하여금 조선 초기 선비문화의 정신과 얼에 대한 교훈을 던져주는 문화재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신민과 독수정 원림

15 박건희

독수정 원림

사군자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칭하는 말로 덕과 학식을 갖춘 선인들의 품격을 뜻합니다. 특히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에도 흔들림 없이 곧게 서있는 대나무는 옛 선비들의 지조와 절개를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조선 초기, 새로운 왕조가 생겨났던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자 한 대나무를 닮은 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난세 속에서도 본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곳 독수정 원림에는 그의 곧은 정신이 담겨있습니다.

독수정 원림(獨守亭 園林)은 고려 공민왕 때 전신민이 지었다고 알려진 독수정이라는 정자를 둘러싸고 있는 숲을 말합니다. 독수정은 앞면 3칸, 옆면 3칸, 가운데 1칸 온돌방을 두고 3면이 마루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재의 독수정은 1972년에 중건된 것으로 독수정 주위의 노거수(나무의 수령이 오래된 당산목, 풍치목, 정자목 등의 나무) 원림만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독수정 주변에는 느티나무, 소나무, 매화나무, 산수유나무 등 크고 작은 나무들이 심어져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 묻혀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조경적인 측면에서 독수정 원림은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산수원림으로서의 기법을 이 지역에 들여오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 독수정 원림

고려의 충신, 전신민

전신민(全新民)은 호는 서은(瑞隱), 본관은 천안인 고려 후기의 무신입니다. 그는 고려 공민왕 때 북도안무사 겸 병마원수를 거쳐 병부상서를 지낸 인물입니다. 현재 전신민의 생졸년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정몽주가 선죽교에서 살해되고 고려가 멸망하자 두문동 72현과 더불어 두 나라를 섬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담양

군 남면에 들어와 은거하며 독수정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의 곁은 정신은 독수정이란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독수정이란 정자의 이름은 ‘夷齊是何人 獨守西山餓(백이와 숙제는 어떤 이 인가, 자신을 지키다가 굶어 죽었다네)’라는 이태백의 시구에서 따온 것입니다. 즉 전신민 또한 백이와 숙제의 고사처럼 두 나라를 섬길 수 없으며 은거하며 살겠다는 뜻에서 정자의 이름을 독수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의 강직함은 독수정의 건축적인 특징에서도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집이나 정자와 같은 건축물은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하는 반면 독수정은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신민은 독수정에서 은거하며 고려 왕조의 도성이었던 북쪽의 송도를 향해 아침마다 절을 했다고 합니다. 전신민은 <독수정원운>이라는 글을 통해 독수정을 세운 이유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드러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王孫芳草傷春恨(아름다운 풀과 꽃들은 가는 봄을 가슴아파하고)
 帝子花枝叫月光(두견새는 꽃가지에 앉아 달을 보고 우는 구나)
 卽此靑山可埋骨(이곳 청산에 뼈를 묻으려고)
 誓將獨守結爲堂(장차 홀로 절개를 지키려 이 집을 지었다네)

<독수정원운(獨守亭原韻)>

이렇듯 독수정과 독수정을 둘러싼 원림에는 두 나라를 섬길 수 없었던 전신민의 강인한 정신이 깃들어있습니다. 전신민은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 속세와 단절된 은거생활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은거’를 선택했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벼슬길에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것이 그의 신념과 더 가까운 행동이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전신민의 선택이 진정한 사군자의 행동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양산보와 소쇄원

15 박건희

소쇄원의 역사와 건축

소쇄원은 1530년경에 양산보가 조영한 별서원림 (별서(別墅): 농장이나 들이 있는 부근에 한적하게 따로 지은 집)으로서 조선 최고의 민간 정원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원림으로 조선시대 민간 정원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6세기 초 양산보의 스승인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인해 사약을 받아 그는 벼슬길로부터 뜻을 버리고 고향인 담양(창암촌)으로 돌아가 여생을 자연 속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스승이 유배당한 후 사약을 받은 것을 통해 현세의 벼슬길의 무상함을 깨닫고 이곳에 은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양산보가 소쇄원을 조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 이후 정유재란 때 건축물들이 불에 타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양산보의 손자 양천운의 주도로 소쇄원 중건이 이루어졌으며 5대손 양경지에 의해 소쇄원은 제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5대에 걸쳐 양산보의 후손들이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소쇄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쇄원에서 ‘소쇄(瀟灑)’는 ‘깨끗하고 시원함’을 의미합니다. 소쇄원은 숲과 자연을 그대로 둔 채 건축물들을 배치한 원림으로서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현재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축물로는 제월당, 광풍각, 대봉대가 있습니다.



▲ 제월당



▲ 광풍각



▲ 대봉대

제월당은 정자보다는 정사(精舍) (별도로 천장을 만들지 않고 서까래를 그대로 노출시켜 만든 천장의 한 종류)의 성격을 가지는 건축물로 주인이 거처하며 조용히 독서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사랑채의 성격을 띤 주인을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제월(霽月)’은 ‘비가 갠 날의 밝은 달’을 의미합니다. 소당(小堂) 혹은 고당(高堂)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제월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

모의 팔작지붕의 한식기와 건축물입니다. 한편, 광풍각은 손님을 위한 사랑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월당의 앞, 계곡 가까이에 세워진 광풍각은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광풍각의 ‘광풍(光風)’은 ‘비가 그치고 해가 나온 뒤에 부는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을 의미합니다. 제월당과 광풍각의 이름은 송나라 황정견이 주돈이의 사람됨을 가리켜 ‘가슴에 품은 뜻의 맑고 밝음은 마치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나며 부는 바람(光風)과 같고 맑은 날 떠오르는 달빛(霽月)과 같다’고 한 데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제월당과 광풍각은 계곡을 중심으로 소나무, 매화나무, 대나무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월당과 마찬가지로 광풍각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팔작지붕 한식기와 건물입니다. 천장은 연등천장 (별도로 천장을 만들지 않고 서까래를 그대로 노출시켜 만든 천장의 한 종류)과 우물 천장 (우물 정(井)지 모양으로 만든 천장의 한 종류)을 혼합하였는데 서까래 (목조건축물의 골격이 완성된 다음, 도리와 도리 사이에 도리와 직각이 되게 걸쳐놓는 건축 부재)가 모이는 부분은 눈썹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붕대는 귀한 손님을 맞이 위해 대를 쌓고 정자를 지은 것입니다. 대붕대에는 ‘봉황새를 기다리는 동대’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는 대붕대 옆에 봉황새가 등지를 틀고 산다는 벽오동나무와 열매를 먹이로 한다는 대나무가 심어져있는 것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붕대의 뒤편에는 ‘애양단(愛陽壇)’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담으로 둘러싸인 마당이 있습니다.

양산보의 이상

양산보는 1503년에 태어나 1557년 3월 20일 병환으로 인해 5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조선 전기의 문신입니다. 그의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언진(彦鎭), 호는 소쇄옹(瀟灑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산보의 삶은 1519년을 기준으로 크게 달라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19년, 양산보가 17세가 되던 해에 그의 스승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죽음은 그로 하여금 세속에 대한 모든 뜻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당시 개혁정치과 왕도정치를 주장했던 조광조를 따르던 사람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스승 아래에서 수학(受學)하여 과거를 거쳐 관직에 진출하려던 양산보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세 벼슬길의 무상함을 깨달은 양산보는 담양에 은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단순한 ‘은둔’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기묘사화를 겪으며 형성된 정치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소쇄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양산보는 소쇄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학문체계를 발전해나갔으며 이는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월 1일

둘째 날

<전쟁과 혼란,
그러나 지조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1. 임진왜란
2. 서산대사와 표충사
3. 다산 정약용과 다산 초당

임진왜란

15 조현정

사회적 배경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입하면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임진왜란은 총 두 차례의 침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침입은 임진년에 일어나 임진왜란이라 하고 두 번째 침입은 정유년에 일어나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두 차례의 침입을 모두 합쳐서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이 큰 타격을 입었던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봉당정치였습니다. 조선 초기 봉당은 각 당들이 의견을 내고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봉당정치의 의미는 변질되었습니다. 각 당들은 나라가 발전하기 위한 토론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당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조선은 한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군 사관들이 돈을 받고 입번을 면제해주는 것이 빈번해 군사력이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이'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였으나, 편당정치의 여파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각 도에 성곽을 정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마저도 백성들은 원성을 하며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힘을 합쳐 일본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는 통일 과정에서 상권과 무역의 통일을 원했고, 전국적인 호구조사와 토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새로운 신분질서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하위 무사나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명과 조선과의 무역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신경을 해외로 돌려서 국내를 안정시키고, 무역상 이득을 얻기 위해 중국침입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명과 닮아 있는 조선을 먼저 침입하게 됩니다.

전개과정

전쟁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조선은 결국 일본의 침입을 받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선의 경작지는 1/3로 줄어들었으며,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거나 일본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한, 왜구의 침입을 받았다는 점에서 전 국민적으로 자존심도 많이 상해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조선인의 긍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 및 각 의병장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충의를 내걸고 싸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 발발될 시기에 전라좌수영의 수군절도사로 있었습니다. 경상우수영으로부터 전쟁이 일어났다고 들은 이순신은 국기일이라 공무를 보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출전하여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당

포·당항포·한산도·부산에서도 승전하였습니다. 특히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로 꼽히며, 일본과의 싸움에서 역전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본받을 점은 그가 무턱대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치밀한 자료조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적은 수의 군사로 몇 십 배가 넘는 일본군을 격퇴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리더십이 뛰어났으며, 전장에서 뛰어난 전술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죽으려 할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할 자는 죽을 것이다.' 라는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를 통해 모든 일에 목숨을 바쳐 일한 그의 신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의병장 및 승려들도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의병들은 가족 및 고향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대표적 인물로는 홍의장군으로 알려진 곽재우, 고경명, 유정, 정인홍, 권응수, 김천일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 전투로는 행주싸움 및 진주싸움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로 목숨을 걸고 싸웠었습니다. 이들의 정신은 마땅히 본받을 만 합니다.

결과 및 의의

임진왜란은 조선의 국토가 폐허로 변하고 수많은 문화재가 약탈되었으며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힌 사건이었지만, 전 민족이 일심 단결하여 국난을 이겨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의를 가집니다. 임진왜란은 순국정신과 의병장들의 힘으로 일궈낸 승리의 전쟁입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과 의병장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기는 했지만,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승리한 전쟁입니다. 둘째, 조선인들은 산과 들을 피로 물들이며 열심히 싸웠습니다. 싸우다 힘이 모자라면 죽음을 당했을 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이 모자랄 때까지 싸우는 지조와 신념을 놓지 않았습니다. 모함을 당하면서도 오직 일편단심 구국의 길을 걸었던 이순신 장군, 충의를 내걸고 싸웠던 수많은 의병장들, 군인과 민간인의 협력으로 기적을 이루어낸 행주대첩, 3만여 명의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였던 진주성 혈전까지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지조와 절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표충사와 서산대사

15 오유진



▲ 표충사 전경

표충사

표충사는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재약산에 위치한 절입니다. 완만하고도 웅장한 능선과 우뚝 솟은 산세,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 그리고 높은 산들로 겹겹이 에워싼 명당에 자리 잡은 표충사에는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사명대사의 충을 기리기 위해 세운 표충사당이 있습니다. 사명대사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고 명나라 군사와 협력하여 평양성의 수복전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도원수 권율과 의령에서 왜군을 격파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1604년 국왕의 친서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 강화를 맺고 포로 신분인 조선인 3500명을 인솔해 귀국했습니다.

원래 표충사는 밀양시 영축산의 백하암 자리에 있었는데 사명대사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국가에서 사원을 짓고 년 2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후 병자호란으로 인해 절의 승려들이 흩어져서 폐허가 되었던 것을 1714년 밀양 군수 김창석이 조정에 상소를 올려서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당을 다시 세워서 사명대사와 사명대사의 스승인 서산대사, 그리고 임진왜란 때 금산싸움에서 전사한 기허당의 영정을 모셨습니다. 그 뒤 남봉이 1738년 사명대사의 행적을 임금에게 올렸고, 당시

임금이었던 영조가 교지를 내려 표충사의 잡역을 면제하고 전답을 하사했습니다. 또한 사우를 3칸으로 하고 단청(옛날식 집의 벽, 기둥, 천장 따위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이나 무늬를 그림. 또는 그 그림이나 무늬)을 행하며 사명대사의 영정을 중앙에 모시고 동쪽에 서산대사, 서쪽에 기허당을 모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우를 정비하여 다시 세우고 중흥사라 하였으나, 산세가 험하고 길이 좁아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1838년 사명대사의 8세손인 천유의 청으로 인하여 1839년 표충사는 영정사 자리로 옮겨서 신축되었습니다.

표충사에 모셔진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그리고 기허당은 모두 임진왜란 때 승려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했던 위인들입니다. 기허당은 임진왜란 때 최초로 승병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수많은 승병들이 꺾기하는 밀바탕이 되었습니다. 기허당은 조현과 합세하여 청주성을 탈환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민족적 위기였던 임진왜란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처럼 조선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위인들, 이름 모를 많은 민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은지는 수백 년이 지났지만 이 곳 표충사에서, 그들의 지조와 절개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서산대사

서산대사는 조선 중기의 승려로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1520년 평안도 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묘향산에 오래 머물렀고 그곳에서 입적(승려의 죽음)했기 때문에 서산대사라고 칭합니다. 서산대사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당시 73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대사는 의병장이 되어 승병 1,500명을 모집해 한양을 수복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1,500명의 의승을 순안의 법흥사에 집결시키고 스스로 그들을 통솔하였으며, 명나라 군사와 함께 평양을 탈환했습니다. 또한 유교, 불교, 도교는 궁극적으로 같다고 주장하여 삼교통합론의 기원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서산대사는 73세라는 많은 나이임에도, 승려의 신분임에도 위기에 빠진 국가와 백성들을 구하기위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용기와 나라에 대한 지조와 절개는 우리 후손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과 다산초당

15 박건희

다산초당의 배경



▲ 다산초당의 모습

강진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만덕산, 이곳에는 다산 정약용의 강인한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1801년 신유사옥으로 알려진 천주교 사건에 연루되어 강진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 후 1808년 만덕산에 위치한 초당으로 옮겨와 약 11년간 이곳에서 유배생활을 했습니다. 이곳은 본래 윤단(尹搏)의 산정(산속에 지은 정자)이었습니다. 정약용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고산 윤선도의 종손인 윤두서의 손녀였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초당으로 올 수 있었

다고 합니다. 다산초당에는 정약용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초당 뒤편의 바위에는 ‘정석(丁石)’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정약용이 직접 쓰고 새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당 마당에는 차를 끓이는 데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뚜막돌이 있으며 네모난 연못을 판 뒤 그 안에 자연석을 쌓아 둥근 섬을 만들었는데 이곳에 흙통으로 물을 끌어와 작은 폭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산의 정신

정약용은 1762년 음력 6월 16일, 현재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아버지 나주정씨(羅州丁氏) 재원(載遠)과 해남윤씨(海南尹氏)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783년 정약용은 23세의 나이로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으며, 1879년 25세 때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801년 신유사옥에 연루되어 천주교인으로 지목받아 포항 장기로 유배되었으며, 9개월 후 유배지를 강진으로 옮기게 됩니다. 정약용은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기기 전부터 조선 말기에 나타난 사회적 모순을 묘사하는 시들을 썼습니다. 초당으로 옮겨온 후에 썼다는 『고양이』라는 시에서는 부조리한 현실이 우화적으로 드러납니다. 다음은 『고양이』 시의 일부 내용입니다.

남산골 늪은이 고양이를 길렀더니
 해묵고 피들어 요망하기 여유로세
 밥마다 초당에서 고기 뒤져 훑쳐먹고
 어둠 틈타 교활한 짓 제멋대로 다하다가
 문 열고 소리치면 형체없이 사라지네

⋮

이때 ‘남산골 늪은이’는 일반 백성을, ‘고양이’는 아전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됩니다. 즉 조선 말기 백성들의 피폐한 생활과 아전들의 횡포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초당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초당 주변의 자연을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변의 농어촌을 찾아다니며 지역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농사법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초당 좌우에 동암과 서암을 지었는데, 동암에서는 주로 정약용이 시간을 보냈으며 서암은 그의 제자들의 거처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초당은 제자들을 위한 교실로 사용되어 그로 하여금 학문과 경륜을 전수하게 했습니다. 오랜 기간 유배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은 초당에서 『정다산전서』 등의 실학체계의 대부분을 구상하고 집필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다산 정약용은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관직에 있을 때와 같이 백성들의 참혹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이루고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지조와 의(義)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산 정약용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일 것입니다.

4월 2일

셋째 날

<아픈 역사 속에 드러나는 지조와 절개라는
이름의 ‘희망’>

1. 광주 항일 학생 운동
2. 5·18 민주화 운동
3. 동학 농민 운동
4. 황토현 전투
5. 고부 농민 봉기와 만석보지

광주 학생 항일운동

15 조혜민

사회적 배경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1929년 11월에 시작되어 이듬해 3월까지 일어난 시위운동으로,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항일 독립 만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기까지는 다양한 배경이 숨어있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기 전 세계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1920년대에 막심한 경제공황을 겪게 되었고, 일본은 경제공황의 영향으로 식량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산미 증산 계획과 쌀 공출작업을 실행하여 식량 기지화하려 하였습니다. 화전민과 유랑민이 급증하였고 조선인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본의 만행들은 당시의 학생들의 반일감정을 고조시켰으며, 학생들은 항일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는 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 해인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일제는 무단정치 대신 문화통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으로만 실시되는 것이었고 실질적으로는 무단정치가 지속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일제에 대해서 극심하게 분노하였고, 독립을 더욱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발단과 전개

이 운동의 발단은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 도착한 통학 열차에서 시작됩니다. 나주역에서 일본인 중학생인 후카다 슈조가 ‘광주 여자 고등 보통학교’ 학생인 박기옥을 희롱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박기옥의 사촌동생 박준채가 격분하여 일본 학생과 충돌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둘의 난투극은 집단 싸움으로 번졌는데, 이를 본 일본 경찰들은 일본인 학생 편만 들고 조선 학생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천황의 생일인 11월 3일 가두시위를 벌였습니다.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친 후, 광주고등보통학교를 비롯한 광주의 여러 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점점 시위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보고 일제는 수십 명의 학생들을 구금하였으며 광주 시내의 중등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신간회(조선민족의 정치적·경제적 해방,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설립한 민족운동단체)와 조선청년동맹, 학생전위동맹(조국 광복을 위한 항일투쟁을 목적으로 설립한 항일비밀결사)은 학생들의 시위 소식을 듣고 조사단을 파견했으며, 성진회의 확대·개편된 조직인 독서회의 장재성 중심으로 학생들의 시위를 전면에 걸친 항일운

동으로 확대시키려고 계획하였습니다. 11월 12일 광주 시내에서 광주의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 날의 시위로 경찰청의 유치소에 다 수감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인원이 구금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이듬해인 3월까지 계속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 중 약 60%에 해당하는 인원인 5만 4,000여 명이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조선 사람들의 자주독립에 대한 갈망과 염원이 담겨있는 민족항쟁이었습니다.

역사적 의의

광주학생항일운동은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항쟁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명칭처럼 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학생들의 사회적 저력을 보여주었던 사건입니다. 민족차별교육과 식민지노예교육에 맞서 이를 반대하는 전국적인 독립운동으로 확산시켰다는 것과, 일제 타도와 민족해방이라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 하였던 운동이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일제의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자주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항쟁을 이어나갔습니다. 나라를 일본으로부터 지키려던 그들의 지조와 절개는 나라를 사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들의 지조와 마음을 잊지 말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15 조혜민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

5·18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시민들이 군사독재를 반대하여 계엄령 철폐를 비롯한 민주화를 요구한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우리 민족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갈망은 이승만 정권부터 오랜 기간 동안의 독재정치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4·19 의거로 12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지만 5·16 쿠데타로 박정희 정권이 집권하여 유신정권의 장기 집권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10·26 사태)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민주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이후 정세가 불안해지자,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 세력이 그 틈을 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12·12 쿠데타) 신군부가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독재 정치를 시행하였고, 이에 맞서 대학생 중심으로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를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신군부 세력은 이러한 민주화 요구에 대하여 국회 폐쇄, 대학 폐쇄, 언론 검열 강화를 통해 무력으로 진압을 했으며 그에 따라 시위의 규모는 확대되어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진행과정

5월 17일에는 5월 15일, 전국의 학생 연대가 서울역에 모여 민중항쟁 시위를 벌이는 것을 보고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 확대하였고 광주의 각 대학에 계엄군을 파견하였습니다. 5월 18일에는 전남대생 50여 명에게 등교를 저지하자 학생들이 휴교령 철폐에 대한 시위를 벌였고 공수부대원의 진압으로 인해 학생들이 부상을 입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19일에는 시위의 양상이 변하였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주축이되었던 시위에 광주의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였고 19일 오후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3,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폭력을 더 이상 참지 못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자유 민주화를 향한 격렬한 요구였습니다. 시위가 더욱 격렬해짐에 따라 공수부대의 진압도 가혹해졌는데, 21일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기간 중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항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날 오후 시민들은 경찰서와 예비군의 무기고를 열어 총으로 무장하였고 자유 민주화 시위대를 결성하였습니다. 27일까지 항쟁이 계속되었는데, 공수부대의 무차별적인 무력 진압으로 인하여 이후로도 많은

사상자들이 속출하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

광주 민주화 운동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민중 의식의 표출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중 의식의 표출은 오직 민주주의의 구현만을 위한 시민봉기였는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동안에 치안 체계가 붕괴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치안 체계를 잘 유지하며 민주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나가 되어 저항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만적이고 부당한 폭력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항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지조와 절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조와 절개를 마땅히 본받아 가슴 속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동학 농민 운동

15 정영찬

역사적 배경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갑오농민전쟁은 고종 31년이었던 1894년, 동학접주전봉준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갑오농민전쟁은 이때까지의 보통의 민란과는 다르게 상당히 복합적인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일어났고 굉장히 큰 규모로 활동이 전개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시 사회의 모습을 통해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세기 후반, 근대사회로의 전환기에 있었던 조선사회는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봉건 사회의 모순에 시달렸습니다. 삼정의 문란을 비롯한 정치적 부패, 탐관오리의 행패 그리고 그에 따른 과도한 세금착취로 인해 농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외세의 수탈과 서양 열강의 중국 침략 등으로 인해 사회 불안은 더욱 확산되었고 그로인해 전반적으로 외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감록과 같은 예언서가 널리 유포되었고 미륵신앙, 도참사상 등 다양한 형태의 반봉건적 민중사상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농촌 계층의 변동에 따라 농민의 사회의식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복잡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풍조가 싹트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민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농민운동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갑오농민전쟁입니다.

갑오농민전쟁은 전라도 고부군에서 일어난 민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전라도는 물산이 풍부한 곡창지대로 조선 전 시대에 걸쳐 수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항상 탐관오리의 행패에 시달리고 있었고 과도한 수탈로 인해 피폐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탐관오리의 행패 속에서 고부군수 조병갑에 항거하는 농민층의 분노가 폭발하여 민란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갑오농민전쟁의 시발점이 된 고부민란입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은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는 기회가 되는데로 수 십 가지의 명목을 들어 농민들을 수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민란의 직접적인 불씨는 만석보의 개수문제에 따르는 수세징수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과 및 결과

조병갑은 농민들에게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강제로 만석보를 쌓게 하였고 농사를 지을 때, 저수지를 이용하는 대가로 수세를 받아냈습니다. 농민들은 민소의 형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병갑에게 호소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봉준은 동지 20명과 함께 사발통문을 작성하여 봉기를 맹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94년 2월 10일, 전봉준은 김도삼, 정익서 등과 함께 봉기하여 고부군아를 습격하였고 성공하여 수탈되었던 수세미(水稅米)를 농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정부는 조병갑의 죄상을 파악하여 그를 체포하고 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태를 안핵사(조선 후기 지방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위해 파견한 임시 직책)로 삼아 사건을 수습하려 하였지만 이용태는 그것을 동학교도 탄압의 기회로 삼아 온갖 악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격분하였고 1894년 4월, 전봉준은 여러 명의 동학접주들과 함께 무장현에 모여 이번의 거사는 탐관오리의 숙청과 보국안민에 있음을 알리는 창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의 이름으로 된 이 창의문에서 농민들에게 봉기할 것을 요청하자 근방의 10여 읍에서 이에 호응하고, 1만여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봉준은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로서 봉기의 앞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5월이 되어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부안관아를 점령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라감사 김문현은 관군을 보내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서 5월 11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걸쳐, 동학농민군은 관군과 황토현에서 접전을 벌였는데 동학농민군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에 사기가 높아진 동학농민군은 황룡촌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그 여세를 몰아 5월 31일에는 전주성에 이르렀고 전주성 점령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전주 입성에 앞서 있을 무렵, 그들은 폐정개혁을 위한 12개 조목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탐관오리를 배격하고 봉건사회의 모순에 대해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요구하였습니다.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난 후, 경군은 그들의 뒤를 따라 6월 1일에 전주성 밖에 이르러 서로 대치하는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두 차례에 접전이 있었는데, 그 두 차례의 전투는 동학농민군이 크게 패배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이 전의를 상실한 상황 아래서, 전봉준은 폐정개혁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해산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강화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초토사 홍계훈도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6월 11일 전주화약이 성립되고, 동학농민군은 10여일 만에 해산하여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동학농민군이 휩쓸고 간 전라도 일대는 치안과 행정이 모두 마비되어서 복구가 시급하였습니다. 이에 새로운 전라감사 김학진은 면리에 집강을 두어 민간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집강을 통해 호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집강소는 전라도 53주(읍)의 관아 안에 설치된 민정기관인데, 이 집강소의 설치로 동학교도가 각 읍의 집강이 되어 사실상 그들이 지방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습니다. 한편 대외적으로 청나라가 톈진조약에 따

라 조선에 파병을 오자, 일본거류민 보호를 구실로 일본도 조선에 들어와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간섭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봉준은 일본군 척결을 위해 다시 한 번 제 2차 봉기를 일으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청일전쟁이 조선 안에서 발발하고, 9월 중순 전봉준은 전주에서, 손화중은 광주에서 척왜를 부르짖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이 되자 10만이 넘는 농민군들이 전라도 삼례에서 2차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1월 하순이 되자 동학농민군은 관군의 근거지인 공주를 향하여 진격하였으나 중간에 상당한 이탈자가 생겨서 겨우 1만여 명만이 남게 됩니다.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접전을 벌이게 된 것은 11월 27일, 목천 세성산 전투였는데, 여기서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사상자 수백 명을 내고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되는 패배로 인해 농민군은 공주 남쪽 30리 지점까지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금치 전투에서 근대식 무기와 장비로 훈련된 일본군을 이기지 못하고 6-7일 간 40-50회에 이르는 공방전 끝에 농민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참패하였습니다. 살아남은 500여명은 훗날을 기약하며 해산하였지만, 전봉준과 손화중, 김개남 등 지도부 대부분이 체포당하여 교수형에 처해졌고 사실상 갑오농민전쟁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역사적 의의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일어났던 갑오농민전쟁은 근대적 민중 항쟁의 출발점이자 반봉건 농민 항쟁의 총결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갑오농민전쟁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숨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고 모순된 사회에 대하여 개혁을 하기위해서 투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그들의 요구가 지켜질 때까지 의지를 굽히지 않는 모습과 총칼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갑오농민전쟁을 이끌었던 나머지 잔여세력은 영학당이나 활빈당, 의병 등으로 발전하여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들의 개혁의지와 신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고 이는 3·1운동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었던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투쟁을 하였는지 그것들을 기억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황토현 전투

15 정영찬

황토현

황토현은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에 위치한 높이 약 30m 정도의 낮은 고개입니다. 황토현 서남쪽으로는 높이가 약 444m의 두승산이 위치해있고, 서쪽으로는 높이가 약 195m인 천태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토현 일대의 약 16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은 ‘황토현 전적지’라는 명칭으로 사적 제 29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황토현 전투는 농민들이 사상 최대 규모와 조직으로 봉기했던 갑오농민전쟁에서 관군을 상대로 한 첫 전투이자 가장 크게 승리한 전투입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로 일어난 고부민란을 시작으로 농민봉기가 점점 규모가 커져 1894년 4월, 전봉준은 김기범, 손화중 등과 함께 무장현에 모여 탐관오리의 숙청과 보국안민을 위한 창의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같은 해 4월 말, 동학농민군들을 백산에 집결시키고 창의를의 뜻을 천명하는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농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이후부터 동학농민군들은 행동강령에 따라 외세와 집권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개혁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난 1894년 5월, 동학농민군이 부안 관아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전라감사 김문현은 농민들을 진압하기위해 전라감영군 약 2,000여 명을 투입시킵니다.

전개과정과 결과

5월 7일, 이경호를 총지휘관으로 편성한 약 2,000여 명의 감영군은 동학농민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금구(전라북도 김제의 현 지명)쪽으로 진출하였습니다. 감영군의 출정 소식을 들은 동학농민군 또한 점령하고 있었던 부안을 떠나 고부로 향하였고 흩어져있던 세력들도 모두 고부로 모여 농민군 약 4,000여명이 두승산에 위치한 황토현으로 집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5월 10일, 황토현 일대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농민군들은 짚으로 가짜 성을 만들어 잠복해 있었고 고개 아래쪽에 도착한 관군은 밤이 되자 사격을 하면서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계속 잠복하며 일체 반응을 하지 않고 기회를 살폈습니다. 사격에 아무런 반응이 없자 관군은 가성을 무너뜨리고 돌격하였는데 관군이 돌격하자마자 농민군들은 관군을 포위하고 사격을 가

하면서 공격하였습니다. 관군 진영은 순식간에 붕괴되어 대부분의 병사들이 도주하였고 농민군은 계속 추격하여 관군을 사살하였습니다. 관군은 총지휘관 이경호가 전사하는 등 약 750여명의 인명피해를 입고 대부분의 무기와 식량을 상실하였습니다. 농민군의 승리로 전투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 의의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농민들은 그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과 개혁의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대승을 거둔 농민군은 사기가 올라 전승의 기세를 몰아갔고 이는 전라도 일대로 그 세력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이는 훗날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주화약을 맺게 하는 등 갑오농민전쟁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봉기하였고 투쟁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지 또한 왜 뜻을 굽히지 않으며 싸움을 이어나갔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부농민봉기와 만석보지

15 정영찬

고부농민봉기

고부농민봉기는 사상 최대 규모로 일어났던 농민운동인 갑오농민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농민봉기입니다. 19세기 말, 이제 막 근대화에 들어서기 시작했던 조선은 대내적, 대외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삼정의 문란 등 정치적 부패가 상당했고, 농민들은 탐관오리의 행패에서 비롯된 과도한 세금의 징수로 인해 고통 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열강의 이권침탈과 여러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 내정간섭이 심화되었는데 그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그 속에서 크고 작은 민란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란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지역은 전라도였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전라도가 풍부한 곡창지대로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가장 심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민란들 중에서도 갑오농민전쟁의 시발점이 된 고부농민봉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농민봉기는 조병갑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고부군수 조병갑은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회가 되는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농민들을 수탈하였으며 그 이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뿐이었습니다. 그는 농민들에게 황무지 개간하게 하면 세금을 면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추수 때 세금을 강제로 걷어갔으며 군민들에게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날조하여 2만냥 이상을 강탈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의 부친을 기리는 비석을 짓는다고 1,000냥 이상을 농민들로부터 강제로 징수하였으며, 대동미(大同米)를 농가에서 거둘 때는 좋은 쌀을 표준하고, 상납할 때는 나쁜 쌀을 사서 바치게 하여 그 차액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석보의 개수문제에 따른 수세징수사건은 고부농민봉기의 직접적인 불씨가 된 사건입니다. 만석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병갑은 농민들에게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강제로 만석보를 쌓게 하였고, 저수지를 이용하는 대가로 수세를 받아낸 것입니다. 이에 결국 농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맙니다.

처음에 농민들은 조병갑을 대표로 두 차례 조병갑에게 가서 만석보 수세에 대하여 감면을 진정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봉준은 동학접주인 동지 20명과 함께 사발통문을 작성하여 봉기를 맹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94년 2월 10일, 전봉준은 약 천 여명의 동학도와 농민들을 이끌고 고부 군아(郡衙)를 습격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고부민란이라고 불리는 고부농민봉기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부조리한 사회 모순에 저항하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 들고 일어난 것

입니다. 농민군은 먼저 무기고를 부수어 충을 빼앗고, 옥을 열어 억울한 죄수들을 석방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약탈한 수세미를 농민에게 반환하고 만석보의 신보를 파괴 하였습니다. 이 틈에 조병갑은 전라감영으로 달아났다가 정부에 의해 체포되고 그는 죄값을 물어 군수자리에서 파면되고 사건을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이후, 정부는 이용태를 안핵사로 삼아 사건을 수습하려 하였지만 이용태는 그것을 동학교도 탄압의 기회로 삼아 농민들을 함부로 체포하고 부녀자들을 능욕하며 재산을 약탈하는 등 온갖 악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전봉준은 동학군을 일으키고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봉기인 갑오농민전쟁의 시발이 되었습니다.

만석보지(萬石淤址)

만석보지는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에 위치한 전라북도 기념물 제 33호입니다. 보(淤)라는 것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대기 위하여 독을 쌓고 냇물을 가두어 두는 저수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석보는 1893년, 고부군수 조병갑이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정읍천과 태인천, 두 하천이 합류하는 하류지점에 새로이 축조한 보입니다. 현재, 만석보는 농민들에 의하여 파괴되어 지금은 독을 쌓았던 흔적과 그 터만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만석보지라고 부릅니다. 비록 지금은 물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하나의 터에 불과하지만, 과거에는 농민들이 고통을 받았던 장소이며 나중에는 그들이 그들의 재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던 원인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싸워왔는지 우리는 만석보지를 보면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73년, 정부는 갑오농민전쟁의 시발점이었던 고부 농민봉기의 근원지인 이곳을 기념하기 위해 2.5m의 만석보 유지비를 건립하였고 1976년, 만석보지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 33호로 지정이 됩니다.

읽기 자료 ; 선운사

15 정영찬

선운사의 연혁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의 동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선운사는 김제에 위치한 금산사와 더불어 전라북도 내 조계종의 2대본사입니다. 영조 22년에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선운사사적기(禪雲寺寺蹟記)에 따르면 백제 위덕왕 24년인 577년에 검단선사가 창건하였는데, 창건 당시에는 89개의 암자와 189채의 건물 그리고 수도를 위한 24개의 굴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외적들의 침략으로 인해 이곳저곳 폐사되어 고초를 겪어 오다가 정유재란으로 인해서 본당을 제외한 나머지가 불타버렸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암자와 건물들은 광해군 5년이었던 1613년부터 거의 100여년에 걸쳐 여러 스님과 승려들이 힘을 모아 창건한 것으로 이는 지금까지도 잘 보존이 되어있습니다.

선운사의 구조

선운사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선운산 매표소를 지나 선운산 둘레를 쭉 따라 걸으면 절의 경역을 알리는 일주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주문을 지나 선운산 둘레를 흐르고 있는 선운천 다리를 건너면 선운사의 입구인 천왕문이 보이는데 천왕문은 절의 수호신장인 사천왕상을 모시는 집입니다. 선운사 천왕문은 다른 절들의 천왕문과는 다르게 2층 집으로 독특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천왕문을 통해 절에 들어가서 바로 보이는 건물은 만세루입니다. 만세루는 절의 강당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 옥내 큰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보통은 그 규모가 상당한데 선운사 만세루는 1층으로 되어있어 절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세루 뒤흘에 위치한 사찰은 석가모니불을 봉안한 법당인 대웅전입니다. 선운사 대웅전의 기둥은 다포양식을 사용하였고 지붕의 모양은 맞배지붕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는 조선 초기와 후기에 유행하였던 건축양식이 조화롭게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운사 대웅전은 현재 보물 제 29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운사에는 영산전과 명부전을 포함한 몇 채의 사찰과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순창 지역개관

- 송기장, 『전라도 그 매력에 빠지다』, 상상나무, 2010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순창의 역사와 문화』, 신아출판사, 2002
건국대 사학과,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답사여행』, 새문사, 2013
김삼웅, 『녹두 전봉준 평준』, 시대의창, 2007

2. 담양 지역개관

- 컬튼스토리, 『가사문학의 산실 담양』, 유페이퍼, 2014
양소희, 『담양 여행』, 낭만판다, 2015

3. 해남 지역개관

- 정운섭, 『녹우당』, 열화당, 2015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리지 전라남도』, 진한엠앤비, 2015

4. 강진 지역개관

- 김덕진, 『강진 지역의 역사와 문화』, 『다산관 현대』, 제7호, 연세대학교 강진다산
실학연구원, 2014
김용규, 『유배지에서 보내는 통신-다산초당을 찾아서』, 『오늘의 문예비평 1999』,
겨울 통권 35호, 오늘의 문예비평, 1999

5. 광주 지역개관

- 광주광역시, 『광주역사 (光州歷史)』, 광주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8.
광주광역시, 『광주시사.제3권 (光州市史.第3卷)』, 광주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5.
광주광역시, 『지배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2000

6. 정읍 지역개관

- 강준만, 『한국 근현대사 산책』, 인물과 사상사, 2007, 125-130쪽.
박영순, 「정읍 갑오동학농민전쟁과 고부구읍성」, 국토연구원, 2008, 175쪽
김양식 외 8명,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충북발전연구원, 2006, 27-29쪽
권인호, 「동학사사과 갑오농민전쟁의 근대적 자주성」, 한국민족문화, 2011, 19-22쪽

7. 귀래정과 신말주

kbs 역사저널 그날 제작팀, 『역사저널 그날 2』, 민음사, 2015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순창의 역사와 문화』, 신아출판사, 2002
송기장, 『사는 동안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전라도』, 선미디어, 2006
박경남, 『신숙주. 지식인을 말하다』, 포럼, 2008
정훈, 『귀래정 신말주 연구』, 한국언어문학회, 2015

8. 전신민과 독수정 원림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웅진닷컴, 2004.

9. 양산보와 소쇄원

류창규, 『양산보(梁山甫) 부자(父子)와 소쇄원(瀟灑園)』, 『남도문화연구』, 제11권,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05
권수용, 『瀟灑園事實』을 통한 瀟灑園 研究』, 『全南大學校 大學院: 문화재학협 동과정』, 전남대학교, 2005
정재곤, 『근세 조선의 누정문화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소쇄원과 인근 누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1-128쪽.
오종일, 『소쇄원 양산보의 의리사상』, 『범한철학』, 제31권, 범한철학회, 2003
장선주, 『소쇄원(瀟灑園)에 내재된 치유성(治癒性)』,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제31권5호, 대한건축학회

10. 임진왜란

박희봉, 『교과서가 말하지 않은 임진왜란 이야기』, 논형, 2014
이민웅, 『임진왜란과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김은경, 『임진왜란 3대 대첩』, 그린북, 2014
윤민식, 『역사추적 임진왜란』, 북랩, 2013

11. 표충사와 서산대사

박진용, 『역사 의병, 한국사를 말한다』, 매일 P&I, 2005
박상란, 『조선시대 문헌 설화의 승상』, 한국학자료원, 2009
최명익, 『서산대사』, 자음과 모음, 2006

12. 다산초당과 정약용

정동오, 『한국 전통정원의 공간구성과 다산 정약용-다산초당과 『조석루기(朝夕樓

記)』를 중심으로』, 『다산과 현대』, 제45 합본호,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2

김용규, 『유배지에서 보내는 통신-다산초당을 찾아서』 『오늘의 문예비평 1999』, 겨울 통권 35호, 오늘의 문예비평, 1999

김덕진, 『강진 지역의 역사와 문화』, 『다산관 현대』, 제7호,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4

13. 광주 학생 항일운동

김성민, 『광주 학생 운동 연구』, 국민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07

최성원,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들』, 고려원, 2001

14. 5·18민주화운동

정주신, 『5·18 민주화 운동』, 프리마북스, 2014

이계형, 『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까: 윤상원 vs 전두환』, 자음과 모음 2013

정해구,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 '서울의 봄'에서 군사정권의 종말까지』, 역사비평사, 2011

김귀옥, 『(198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경험과 기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5. 동학 농민 운동

한우근, 2003, 『동학과 농민봉기』, 일조각

최기성, 2006, 『동학농민혁명운동 연구』, 서경문화사

조광환, 2014,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 살림터

16. 황토현 전투

한우근, 2003, 『동학과 농민봉기』, 일조각

최기성, 2006, 『동학농민혁명운동 연구』, 서경문화사

조광환, 2014,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 살림터

17. 고부농민봉기와 만석보지

한우근, 2003, 『동학과 농민봉기』, 일조각

최기성, 2006, 『동학농민혁명운동 연구』, 서경문화사

조광환, 2014,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 살림터

18. 읽기자료 ; 선운사

고영섭, 2007, 『선운사』, 대원사

19. 사나래 세미나

김난옥, 「[역비논단]고려시대 유배길」, 역사비평 2004, p. 199-216

김경숙, 「[옛 길을 따라] 조선시대 유배길」, 역사비평, 2004, p. 262-282

박성규, 「정도전 연구 - 그의 <금남잡가>, <금남잡제>를 중심으로」, 민족어문학회, 1981, p. 279-293

부영근,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시 고찰」, 영주어문학회, 2006, p. 23-48

류창규, 「나주 회진 유배시절 삼봉 정도전의 유배지 사람과의 소통과정 -농민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정체성 찾아가기-」, 호남사학회, 2006, p. 139-168

김영수, 「유배, 혁명, 그리고 「파리아(pariah)의 성리학」, 한국정치사상학회, 2006, p. 7-32

김태희, 「유배객 정약용, 강진에 살다」,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p. 351-362

김대중, 「정도전 금남잡영 연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p. 157-197

양진건·현은선, 「추사 김정희 제주유배기록에 나타난 화목의 교육적 의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4, p. 244-265

안외순, 「추사 김정희와 윤상도 옥사, 그리고 정치권력」,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3, p. 109-154

한창훈,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기 인간과 그 문학적 성격」, 제주학회, 2000, p. 1-16

양진건,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 교회사상 연구」, 1992, p. 181-217

조평환,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유배서간(流配書簡)에 나타난 제주(濟州)의 생활정서(生活情緒)」,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7, p. 183-206

정후수, 「추사(秋史) 김정희의 제주도 유배(流配)생활」,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96, p. 33-64

임형택, 「특집(特輯) - 호남의(湖南) 학문전통과 한문학(漢文學): 정약용의(丁若鏞) 강진(康津) 유배시(流配時)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 한국한문학연구, 1998, Vol. 21 No. 0

조항덕, 「三峯 鄭道傳의 思想과 그 文學的 具現」,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p. 10

[사학과에 대한 나의 생각]

— 익명이니까 자유롭게 써주세요! **학과**에 대한 생각도 괜찮고, **교수님**들에 대한 생각도 괜찮고, **학생회장**이나 **부학생회장**이나 **학생회**에 대한 생각도 괜찮아요! 뭐든 괜찮으니깐 자유롭게 편하게 써주세요!

ex) 학생회장 너무 못생겼어요~ / 박구병교수님 더 친해지고 싶어요~~ / 레크레이션 좀 더 신박한거 없나요? / 부학생회장 너무이쁘네용♥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ENDING CREDIT

지도 교수님

조성을 교수님

편집자

16 최윤환

16 김기영

14 조현희

제작자

역사기행반

And

사학과의 꽃 ❀춘계답사❀를 와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아주대학교 사학과 소학회
역사기행반
2017. 3.